

6주차 애통은 애통이고 의리는 의리라



이미지 출처: <사도>(2014)의 한 장면, 네이버 영화

강의 이소윤

6주차(4/4)	한중록	
7주차(4/11)	패싱	
8주차(4/18)	중간고사	중간고사 대체 과제-감상평 제출
9주차(4/25)	화차	
10주차(5/2)	엠마	
11주차(5/9)	아기장수 전설	
12주차(5/16)	허삼관 매혈기	
13주차(5/23)	형거게임	
14주차(5/30)	신과 함께	
15주차(6/6)	학생발표	
16주차(6/13)	기말시험	

혜경궁 홍씨(1735-1815)

- 1735년 6월 18일 서울 거평동에서 출생.
-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한은 노론 측, 1743년 3월 태학 장의로 궁궐에 들어가 영조의 신임을 받음.
-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 1744년 1월 11일 동갑내기 사도세자와 혼인하여 세자빈이 됨.
- 혜경궁의 친정은 문학 전통이 매우 강한 집안이었음.
- 홍봉한의 외조부는 조선 최초의 야담집 《천예록》의 찬자 임방.
- 혜경궁 외가에서는 야담집 《계서야담》이 발굴됨.
- 그 외 한글로 번역된 가전, 행장 등이 다수 전해짐.



《한중록》의 저술시기와 저술내용

- 저술 시기

① 1795년

② 1802년 봄과 여름

③ 1805년과 1806년

- 저술 내용

제1부

제2부

제3부



〈한중록〉, 이미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도세자의 죽음

-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세간의 이설

“대저 경모궁의 돌아가심에 대해 세상에 두 견해가 있으니, 둘 다 다른 생각이 섞여 있고 실상도 왜곡한 것이라. 한 의견은 영조의 처분이 광명정대하여 하늘 아래 뒤틀린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영조의 큰 공적으로 일컫는 것이라. 이는 경모궁께 애통망극한 뜻이 없으니, 경모궁을 불효죄로 몰아가는 것이라. 이리되면 영조 처분이 무슨 역적을 소탕하거나 역변을 평정한 것처럼 되니, 경모궁께서는 어떤 몸이 되시며 그 아드님 정조는 또 어떤 처지가 되시리오. 이는 경모궁과 정조 두 부자분께 모두 망극한 말이오.

또 한 의견은 경모궁께서 본래 병환이 없는데, 영조께서 혈뜰는 말을 들으시고 과한 행동을 하셨으니, 원수를 갚아 치욕을 씻자 하는 것이라. 이 말이 경모궁 원한을 푸는 말인 듯하나, 이 말대로라면 영조께서 무죄한 동궁을 누구 모함을 들으시고 처분하신 것이 되니, 이리하면 이것이 영조의 큰 잘못을 드러낸 것이라.”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사도세자의 죽음

- 혜경궁 홍씨의 견해는?

《한중록》의 저술동기

- 혜경궁 홍씨의 저술 동기

“근년1801년 내 아우가 역적으로 몰려 죽고 또 딸마저 죽는 등 안팎의 참화를 첩첩이 겪은 후 목숨이 실 같아서 거의 끊어질 듯하니, 이 일을 주상이 모르게 하고 돌아가기가 실로 인정이 아니라. 죽기를 참고 참아 이리 기록하나, 차마 쓰지 못할 마디는 뻔 것이 많고 자잘한 것은 다 거두지 못하니라.”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한중록》의 문학성

- 영조의 편집증적 성격

“세자 섬길 때 부드러이 섬기고, 말소리나 얼굴빛을 가벼이 말고, 눈이 넓어 무슨 일을 보아도 그것들은 모두 궁중에서는 예삿일이니 모르는 체하고 먼저 아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여편네 속옷 바람으로 남편을 뵈는 것이 아니니, 세자 보는 데 옷을 함부로 헤쳐 보이지 말고, 여편네 수건에 묻은 연지가 비록 고운 연지라 해도 아름답지 않으니 묻히지 마라”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이미지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중록》의 문학성

- 영조의 편집증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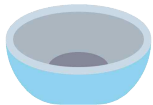
“밖에서 정사政事를 보시고 드실 제 그 의복을 그대로 입으신 채 바로 동궁을 부르시어
“밥 먹었냐”

물은 다음, 경모궁께서 대답하시면 그 자리에서 귀를 씻으시고, 씻으신 물을 당신이 사랑치 않는 화협옹주 있는 광창廣窓, 문
짝 위에 단 넓은 창문 쪽으로 버리시니라. 또 경희궁에 계실 때는 그 물을 화협옹주 있는 집으로 담을 넘겨 버리시니라. 그것이
본디 그리 갈 것이 아닌데, 어떤 따님은 밖에서 입으시던 옷을 갈아입으시고서야 보시고, 이 중한 아드님은 말씀 듣고 귀를 씻
으신 후에야 들어가시니, 경모궁께서 화협옹주를 대하시면

“우리 남매는 귀 씻을 준비물이로다”

하고 서로 웃으시니라.””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한중록》의 문학성

- 영조의 편집증적 성격

“영조께서는 아버지께 효도하시고 조상 받드시고 경천애민敬天愛民하시는 높은 덕과 정성이 옛 제왕들보다 뛰어나시니, 내 눈으로 보고 기억한 것으로도 역대에 비할 임금이 아니 계시니라. 다만 허다한 어려움을 겪으셨으니, 즉위 전에는 줄곧 신변에 위협을 느끼셨고, 즉위 후에도 이인좌의 난 등 시련을 겪으시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생각하시다가 이것이 거의 병환이 되신 듯싶으니, 그사이 세세한 일들이야 어찌 다 기록하리오.”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영조 초상, 이미지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한중록》의 문학성

- 사도세자의 의대증

“이때 경모궁께서 의대衣對 왕가에서 옷을 이르는 말 병환이 극하시니, 그 어인 일인고. 의대 병환이야말로 더욱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괴질이니, 대저 옷을 한 가지나 입으려 하시면 열 벌이나 이삼십 벌이나 해놓아야 하는데, 그 옷마저도 잘 입지 못하시면, 귀신인지 무엇인지를 위하여 불태우기도 하니라. 한 벌을 순히 갈아입으시면 천만다행이나, 옷을 입지 못하시면 당신은 당신대로 애를 쓰시고, 이때 시중드는 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니, 이 아니 망극한 병환이냐.”



이미지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한중록》의 문학성

- 사도세자의 의대증

“경모궁께서는 병환이 나면 사람을 죽이고야 그만두시니라. 당시 경모궁의 옷 시중은 청근현주의 어머니, 빙애가 들었는데, 병환이 점점 더하시어 그것 총해시던 것도 잊으신지라. 1761년 정월에 궁 밖으로 나가시려고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발병하시어 그것을 죽도록 치고 나가시니라. 그것이 즉시 대궐에서 그릇되니, 제 인생이 가련할 뿐 아니라, 제 자녀로 은전군과 청근현주가 있으니, 어린 것들 정경이 더 참혹하더라.”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92265

이미지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중록》의 문학성

- 사도세자의 살인

“심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닭 짐승이라도 죽이거나 해야 마음이 낫나이다” 하시니라.

“어찌 그러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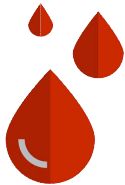
“마음이 상하여 그러하나이다.”

“어찌하여 상하였니?”

“사랑치 않으시니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하오이다.”

경모궁께서는 사람 죽인 일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세세히 다 고하시니라. 영조께서도 그때는 일시 천륜의 정이 동하시던지, 어찌하여 성심이 측은하시던지

“내 이제는 그리 않으리라” 하시니라.”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한중록》의 문학성

- 사도세자의 살인

“또 그 진노가 조금 준 다음 경춘전으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자가 마음이 상하였다 하니 그 말이 옳으냐” 하시니 부자 사이에 그런 말씀이 처음이신지라.

내 뜻밖에 천만 의외의 말씀을 듣고 기쁘고 놀라워 목메어 눈물을 흘리며

“그러하옵다뿐이리까. 어려서부터 자애를 입지 못하여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라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그러하오이다” 하고 여쭙니

“마음이 상하여 그러하였다 하는구나” 하시니라.

“상하기를 어이 다 이르리까. 은애恩愛를 드리우시면 그렇지 않으리이다” 하고 여쭙며 서러워 펄펄 우니,

영조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명했다 하고, 잠은 어찌 자며 밥은 어찌 먹는지, 내가 묻는다 하여라” 하시니라. 그날이 1758년 2월 27일이니라.”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한중록》의 문학성

- 사도세자의 살인

“내가 또

“이리 들었으니 이후는 부자간 사이가 행여 나으시리이까”

하니, 화증을 덜컥 내시며

“자네는 사랑하는 며느리이기에 그 말씀을 곧이듣는가.

부러 그리하시는 말씀이니 믿을 것이 없으니, 필경은 내가 죽고 마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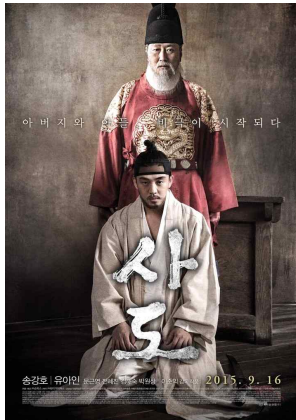
말씀하시니, 그리할 제는 병환 계신 이 같지 않으니라.”



이미지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영화 <사도>(2015)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 2015년 9월 16일에 개봉. 62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
- 2015년 올해의 영화상에서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 조연상 수상
- 2015년 청룡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촬영상, 조명상, 음악상 수상
- 2016년 백상 예술 대상 수상.
- 상업적으로뿐만 아니라 영화적으로도 성공한 작품.

영화 <사도>(2015)의 첫 시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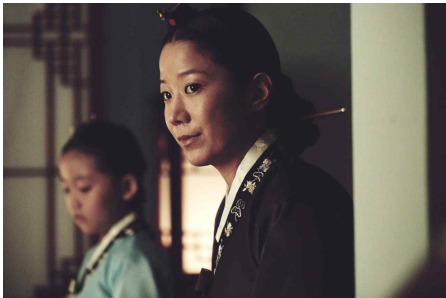
- 부자의 갈등이 고조에 이른 상황을 첫 시퀀스로 보여줌.

“수구를 통해 윗대궐로 가신다 하다가 못 가시고 도로 오시니, 이는 처분을 받으시기 전전날과 전날인 윤5월 11일과 12일 사이라. 상황이 이러니 어찌 허황한 소문인들 나지 않으리오.”



-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망할 것을 예고.
- 이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장면을 보여줌.
- 영화는 사도세자가 갇혀 있던 8일 동안과 그 사건의 원인을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

영화 <사도>(2015)의 플래시백



- 처음에 영조로 시작해서 혜경궁, 사도, 정순왕후, 어린 정조에서 성인 정조로 이어지는 플래시백
- 플래시백으로 돌아가는 인물이 그 다음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식
-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에 사건 하나를 놓고 나머지를 캐릭터의 사연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
- 장면 전개에 따라 인물들의 감정선이 점층적으로 쌓임
- 그러나 잦은 플래시백은 자칫 관객들이 주인공의 감정을 놓치게 할 우려 존재.

영화 <사도>(2015)의 영조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 마지막 9분 가량 이어지는 뒤주 앞에서 영조가 대화하는 장면
- 사극 말투로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대어로 이야기
-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에서 대사를 하고 오히려 뒤주로 다가가는 장면에서는 대사를 하지 않음
- 그러나 배우는 마치 계속 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여운을 남김

영화 <사도>(2015)의 사도세자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 그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고독한 세자의 모습
- 실제로는 화평옹주, 인원왕후, 정성왕후, 화협옹주 등이 사도세자의 편을 들어주었음
- 무리 중에서 홀로 발산하는 내면의 연기

영화 <사도>(2015)의 정조

이준석 曰: “이 이야기는 변증법으로 정,반, 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조가 정이고, 사도 세자는 반이며, 정조가 합이다. 난 이걸 업,덕,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영조는 아들을 죽였으니 업이요, 사도세자는 아들을 위해 죽었으니 덕이요, 정조는 그 덕에 왕이 돼 영조와 사도세자의 화해를 바랐으니 복이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마지막 소지섭이 정조가 돼 화해, 해원(원한을 해소)의 춤사위를 추는 것으로 끝이 난다.”



영화 <사도>(2015)의 혜경궁 홍씨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영화 <사도>(2015)의 '옥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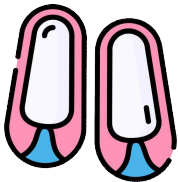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이준석 曰: “이 영화에 전통음악은 크게 '부모은중경' 회심곡 '옥추경'을 썼다. 그 중 옥추경은 원한을 담은 영혼을 달래는 노래다. 박수무당이 부르는 노래다. '사도'에서 맹인박수 역할을 맡은 정해균이란 배우가 그 노래를 두 달 동안 박수무당에게서 배워왔다. 영화 속에서 그들이 죽을 때, 사도세자와 같이 부른 노래가 그 노래고, 사도세자가 자기 무덤에서 진혼을 하며 부른 노래가 그 노래다.”

질문거리들

- 작품 속 명구절과 영화 속 명대사를 비교해보자.
- “애통은 애통이고 의리는 의리라”라는 구절의 의미가 《한중록》과 <사도>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이후에 정말 후회했을까?



참고문헌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전형화, "이준익 감독이 전하는 '사도'의 길고 긴 이야기(인터뷰, 스포多)", <스타뉴스>, 2015.09.08.

박은미, 「한중록의 전승과 현대적 변용의 특질」, 『온지논총』55, 온지학회, 2018.

정병설, 「『한중록』의 신고찰」, 『고전문학연구』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정병설, 「영화 역사화의 한 사례-영화 <사도>-」, 『인문논총』74-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